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요한 클리막스의 하늘로 가는 사다리

사순절 제4주일 / 성 요한 클리막스 수사

성 마르코 아레투시온의 주교

제8조, 조과복음 8

성 대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46. A 139

· 성 요한 클리막스 수사 찬양송 / 비고정 축일 성
가집 46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사도경: 히브리 6,13-20 / 233. 봉독서 454

· 복음경: 마르코 9,17-31 / 139. B 97

· 성모송(성 대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62. A 171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메시지

세계총대주교청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거룩한 소피아의 도시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나타나 인류를 시련에 들게 하여 공황에 빠트리는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친애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교회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의 말씀은 수세기의 경험에서 배운 대로 고맙고, 교훈적이며, 지지해주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뒤로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환자들의 바로 곁에서 고생하시는 의

사들과 간호사들인 의료인들

— 예방백신과 적합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헌신을 다해 노력하는 의학 연구자들

—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이 사태를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친애하는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이 모든

일들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

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대

한 희생으로 가치 있는 일이며 감사한 일입

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느 곳에서나, 매

일

☞ 2면으로 계속

☞ 1번에서 계속

순간 진심을 담은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심은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와 보건당국은 올바른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책임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는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책임이 분명한 대상들과 싸우는 군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적은 인류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깨에 짊어진 책임에는 우리의 협조가 꼭 동반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사회, 단체가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권고하건대, 모든 어려움에 인내하고 정부와 보건당국의 정책에 정확하게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정책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협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 몇몇은 이러한 방침에 대해 믿음이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위협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며,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며, 완전한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문화의 뿌리에 깊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각종 모임들과 많은 군중이 모이

는 행사들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머무르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보호하십시오. 우리의 일치된 영적 힘에 의지하여, 모든 인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매 순간, 우리 각자 모두 기도하십시오.

과학자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바이러스와의 투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 사막을 횡단했던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도로써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와 거룩함의 투쟁을 계속해나가면서 영적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이들은 벌써 죽어서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환자들이 회복되기 위해, 희생자들 영혼이 안식을 얻기 위해,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가족들이 굳세어지고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기 위해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내 이 시련은 지나갈 것입니다. 구름은 사라지고 정의의 태양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를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사랑과 연대를 확립하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자녀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과 복음사가의 중보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인 격리로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함께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목표가 되고, 우리의 뜻하는 바가 진리이신 하느님의 마음에 들게 되도록 합시다! 힘내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새로운 지침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지침을 전달합니다.

- 1. 기도 운동(캠페인)** ▷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팬데믹처럼 어려운 시기에 기일수록 하느님과 친교를 절대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감염병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종료될 때까지 기도 운동(캠페인)을 시행할 것입니다.
- 2. 공동 기도의 시간** ▷ 매일 밤 10:00~10:15에 우리 교회 신자들의 공동 기도를 정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같은 시간에, 각자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희생자들을 위해, 환자들을 위해, 그들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큰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 3. 기도하면서 가정에 머무십시오** ▷ 우리 정교회 신자들은 라자로 부활 토요일(2020년 4월 11일)까지 성당에 오시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가정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위험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것입니다. 대사순절의 모든 거룩한 예배들은 성당에서 신자들의 참여 없이 성직자들과 협조자들만으로 거행될 것입니다.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는 조과와 석후대과와 기립찬양이 이루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신자들께서는 가정에서 정교회출판사에서 출간한 ‘정교회 소기도서’를 사용하여 가정에서 기도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는 아침기도(14~22쪽) 오후에는 석후대과(62~91쪽), 기립찬양(115~131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시간을 맞출 수 없는 분들은 다른 시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 4. 성당에서의 개인 기도** ▷ 우리 성당들은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한 기도를 원하는 신자들을 위해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성당 출입을 금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원 방문도 금합니다.
- 5. 온라인 성서 공부** ▷ 매 주일 2:00~3:00까지 온라인을 통해 우리 교회의 신자들의 영적 양식을 위해 성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 6. 가정에 사제 방문** ▷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제에게 전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소통하십시오. 또한 특별한 필요에 의해 사제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여 성체성혈을 영해주거나, 다른 거룩한 행위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 7. 부활절 잘 맞이하십시오** ▷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건강에 대한 모든 지침을 철저히 따르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기간을 줄여 주실 것”(마태오 24:22)이고, 잠시 동안 영적으로가 아닌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성당에서 곧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부활절 잘 보내십시오!

소 식

대교구

■코로나19에 대한 가정 기도

매일 밤 10:00~10:15까지 ‘만군의 주님’에게 우리 모두 기도로 하나 되어 코로나19의 전염에서 세상을 보호해 주시도록 주님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1. 가장 먼저, 10분 동안은 ‘예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짧은 기도로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간청할 때, 오직 하느님의 자비만이 이 끔찍한 세계적인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희생된 분들의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세 번째로,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내와 용기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힘을 내려주시도록 간청합니다.
4. 네 번째로, 주님께서 환자들의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가족들이 환자 곁에서 침착하게 함께하면서, 가족들의 도움이 결실을 가질 수 있게 간청합니다.
5. 다섯 번째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정신적, 육체적 힘으로 잘 무장하여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청합니다.
6. 여섯 번째로, 치명적인 코로나19에 대한 적합한 치료약을 과학자들이 발명할 수 있게 주님께서 깨달음을 내려주시도록 간청합니다.
7.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주시도록 주님께 간청합니다.

만약,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루가 11:9)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코로나19로부터 인류가 벗어나는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간 예식

- 화·수·목요일 오후 5시: 석후대과
- 4월 1일(수) 오전 9시: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4월 3일(금) 오후 6시: 성모기립 찬양
- ▶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